

14세 '플루트 소년' 세계최고 명문 음대 입학

美커티스 음대 합격한 호남예술제 수상 유지훈군

광주 삼육초 1년때 플루트 만나
금호영재콘서트 합격 독주회 열기도
지난해 싱가포르·홍콩 콩쿠르 1등
"새로운 도전 기쁨...세계적 연주자 꿈"



열 네살 플루티스트 소년이 세계 무대를 향한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다.

광주 출신 유지훈군이 세계 최고의 명문 음악 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커티스 음악대학(Curtis Institute of Music)에 합격했다. 유 군은 오는 8월부터 커티스 음대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공부하게 된다.

1924년 문을 연 커티스 음대는 줄리어드 음대와 쌍벽을 이루는 유수의 음악 대학으로 전교생이 160명 정도에 불과한 소수 정예 학교다. 우리나라 플루티스트로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플루트 수석을 맡았던 최나경, 서울대 윤해리 교수 등이 수학했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 다니는 유 군은 지난해 예원학교를 지퇴한 후 흡스쿨링을 하며 해외 유학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말부터 커티스 음대 입학 시험에 도전한 유 군은 1차 비디오 심사를 거친 후 현지에서 1차, 2차 오디션을 통해 당당히 합격했다. 오디션에서는 카차투리안의 '플루트 콘체르토' 등을 연주했다.

"교수님이 워낙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오디션을 보며 많이 떨리지는 않았어요. 제가 나이가 어린데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영광스러워요. 유학 가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해 훌륭한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영어를 써야하는 게 조금 두렵기는 하지만 영

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지난해 줄리어드 대학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이번에 가는 커티스 대학교에 좋은 선생님이 많아 기대가 높아요. 또 오케스트라와 실내악을 배울 수 있는 점도 기대가 됩니다."

처음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과 접한 유 군은 광주삼육초등학교 1학년 때 방과 후 활동으로 플루트를 만났고, 2학년 때 나간 콩쿠르에서 금상을 받게되자 금세 재미를 느꼈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에서 2014년, 2015년 두차례 연속 최고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낸 유 군은 2015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이 주최한 제5회 금호주니어콘서트에 합격, 독주회를 열기도 했다.

2016년은 풍성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 싱가포르 국제 플루트 페스티벌과 홍콩 국제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했으며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으로도 합격해 지원도 받게 됐다. 또 국내 대표 콩쿠르인 이화 경향 음악 콩쿠르에서 중등부 1등을 차지했고, 서울 금호영재 콘서트 독주회도 열었다.

광주의 박지혜, 서울시향 박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예린 교수 등을 사사한 유 군은 매일 8~9시간씩 플루트를 부는 연습벌레다.

"공연을 때는 각 긴장하기 보다는 즐기는 편이에요. 독주회를 할 때는 제가 속도, 느낌 등을 이끌고 갈 수 있어 좀 더 편하고 협연할 때는 오케스트라 속도에 맞춰야 해서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다 재미있어요. 선생님들이 호흡이 좋고 습득력이 빠르다고 칭찬해주셔요. 무엇보다 많은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탄탄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제임스 골웨이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플루트 수석 엠마뉴엘 파우드, 러시아 연주자 데니스 보리아코프 등을 좋아하는 유 군은 앞으로 유명한 솔리스트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게 꿈이다.

"외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기뻐요. 평범하게 학교 다니는 친구를 보면 가끔 부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또 제 꿈이 있으니 열심히 해야죠."

세계를 향해 도전의 첫 발을 댄 '플루티스트 소년'의 꿈을 응원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예술축제 '어여쁘다 공동' 내일 개장

통기타·재즈보컬 등 공연...매주 토요일 개최

예술의 거리에서 펼쳐지는 공동거리 예술축제 '어여쁘다 공동'이 4월1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찾아온다.

첫 행사는 최근 세월호 인양과 관련, 차분한 분위기로 치뤄진다. 계절이 바뀌는 4월 분위기를 표현한 '심상생생'을 주제로 공연 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야외무대에서는 오후 2시30분부터 전자바이올린(김수진), 통기타(이우호), 플루트&현악4중주(민성호), 재즈보컬(최정미)을 공연한다.

진옥선 경매장에서 진행되는 예술영 화극장은 오후 4시 구스타프 클림트의 삶을 다룬 '우연 인 골드'를 상연한다.

오후 3~5시 동부경찰서 앞에서는 갤러리 투어(고서당~고전방~갤러리 S~갤러리북~무등갤러리~세계조각장식박물관~조각의 거리)를 시작한다.

풀하우스공방, 석당화랑, 갤러리북 앞에 파라솔을 활용한 로드카페를 설치해 심터를 제공한다.

또 전작도장판들기, 페이스페인팅, 관상보기, 캐리커처그리기, 한지공예, 풍선아트 등 체험프로그램 40여가지도 준비해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다.

그밖에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과거를 즐기는 소소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문의 062-224-032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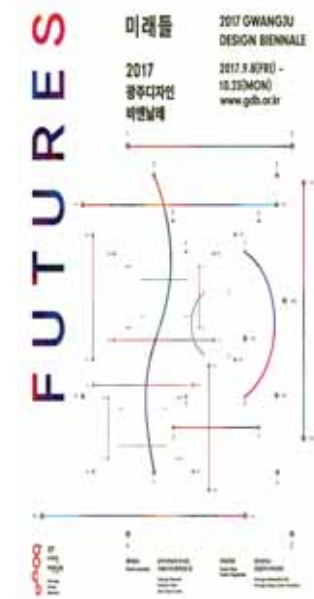
광주디자인비엔날레 EIP 공개

광주디자인센터가 '2017광주디자인비엔날레' (9월8일~10월23일) 주제 '미래들'(FUTURES)을 표현하는 포스터 등 EIP(Event Identity Program)가 발표했다.

포스터는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스크래치 기법'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선과 점을 모티브로 과거·현재·미래의 연결·연속성, 초연결·초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특징을 담았다.

다양한 컬러 연출도 독특한 느낌을 자아낸다. 파란색과 자주색이 어우러진 색깔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뜻하고 선과 점, 숫자는 미래의 '문'을 여는 손잡이를 의미한다. 또한 '스크래치 기법' EIP를 바탕으로 디자인한 블랙·화이트 기반 포스터 2종도 공개했다.

이벤트에 개발된 EIP는 입장권을 비롯해 홈페이지, 인쇄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병규 작가 서울 개인전

내달 2일까지 롯데호텔아트페어 참여...20여점 전시

연진미술원 출신으로 해남농협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김병규 작가가 4월2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호텔아트페어 'SCAF ART FAIR 2017'에 참여해 개인전을 연다.

한국미술센터(관장 이일영) 초대작가로 선정된 김씨는 '웃(웃음)', '목계(木鷄)' 등 대표작 20여점을 출품한다.

작가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조형성을 강조한다. '웃' 작품은 일필휘지로 크게 쓰고 웃음에 대한 단상을 한글로 적어놓았다. 웃으면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고 행복이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목계'는 길게 목을 늘어뜨린 닭 그림이 눈에 띈다. 나무로 된 닭처럼 평정심을 갖추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삼농 김상섭, 일청 함종성을 사사한 김씨는 4월 열리는 서울 코엑스 '서울 예술 박람회', 일본 도쿄 한인회 초대전을 앞두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목계’



전통문화관 을 첫 일요상설공연 '어화동동'

내달 2일 하늘나래예술단 놀이 한마당...나들장터도 열려

전통문화관 일요상설공연과 일요나들장터가 4월2일 오후 3시 을 첫 행사를 시작한다.

올해 일요상설공연은 공모를 통해 민요·양상보 등 15개 단체를 선정, 오는 7월 9일까지 매주 공연을 펼친다.

첫 공연은 '(주)하늘나래예술단(대표 정인성·사진)'을 초청, 신명나는 한마당 놀이 '어화동동'을 선보인다. 역동적인 북 연주를 시작으로 부채춤, 사물놀이, 국악가요·민요메들리 등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

진다. 감독 정인성, 무용 장우정, 신디 문경미, 국악가요 방수지, 타악 창동준, 임지영, 신지수, 나세리씨가 출연한다.

공연이 열리는 동안 전통문화관 일대에서 '일요나들장터'가 열려 불거리, 떡볶거리, 줄길거리를 함께 제공한다.

매주 토요일 개최되는 토요일상설공연(1월)은 가야금병창단 '현의 노래'가 사랑가, 아리랑연가, 흥타령 등을 선보인다. 문의 062-232-1595. /김미은기자 mekim@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화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